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4호 2011(616~62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윤갑식*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기업유치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들의 이전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기업유치업종, 지역산업연관모형,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 이래로 정부는 수도권의 지나친 인구 및 경제활동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신규 공장건설 및 기존시설 증설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구교준 · 조광래, 2008).

이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선진기술 및 선진기업문화 전수 등 다양한 측면의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개별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저렴한 용지 제공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에서 지역으로 유치된 기업이 지역내 산업구조와의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지역내 다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교수

활성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서는 외부기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치기업에 대한 업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즉, 지역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서 유치할 기업의 업종은 이러한 기준에서 선정되어야 하겠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면서 이전기관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김영덕 · 조경엽(2006)은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교준 · 조광래(2008)은 강원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으로 인해 유발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송가영 · 김의준(2007)은 다지역산업연관모형(multi-region input output model)을 이용하여 10대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국 및 지역산업의 생산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 및 산업연관모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데 반해,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기업의 업종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즉, 생산과 소득, 고용 등의 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산업부문은 생산활동 및 판매과정을 통해서 지역내 산업 또는 타지역 산업과 상호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이러한 산업간 · 지역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구조의 산업간 · 지역간 상호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산업연관모형은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지방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방 이전공장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공장조성이 완료된 이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단계 효과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직접적인 건설비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사업비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운영단계 효과는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 즉 해당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설단계 효과는 일시적인데 반해, 운영단계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영단계의 효과가 건설단계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유치할 업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이전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를 제시하고, 유치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능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하되 분석의 편의를 위해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수도권 제조업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조업 업종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광역경제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치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2. 분석모형

1) 모형의 기본구조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모형이다. 일반적인 산업연관모형에서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고려해서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과 다른 형태의 분

투입 \ 배분			중간수요		생산액 변화부문	최종수요		총산출
			지역 R	지역 S		지역 R	지역 S	
			$1 \cdots j \cdots n$	$1 \cdots j \cdots n$	e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중간투입	지역 R	$1 \vdots j \vdots n$	X_{ij}^{RR}	X_{ij}^{RS}	X_{ie}^{RR}	F_i^{RR}	F_i^{RS}	X_i^R
	지역 S	$1 \vdots j \vdots n$	X_{ij}^{SR}	X_{ij}^{SS}	X_{ie}^{SR}	F_i^{SR}	F_i^{SS}	X_i^S
생산액 변화부문		e	X_{ej}^{RR}	X_{ej}^{RS}	X_{ee}^{RR}	F_e^{RR}	F_e^{RS}	X_e^R
수입		$1 \vdots j \vdots n$	M_{ij}^R	M_{ij}^S	M_{ie}^R	Y_m^R	Y_m^S	
부가가치			V_j^R	V_j^S	V_e^R			
총투입			X_j^R	X_j^S	X_e^R			

X_{ij}^{RS}: 지역 S 산업 j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지역 R 재화 i의 규모, M_{ij}^R: 지역 R 산업 j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해외수입재 i의 규모
V_j^R: 지역 R 산업 j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부가가치 규모, F_i^{RS}: 지역 R에서 생산된 i 재화가 지역 S에서 소비되는 최종수요 규모
X_j^R: 지역 R 재화 j의 생산액

그림 1. 생산액 변화부문이 외생화된 다지역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석모형 적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종수요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생산액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변할 경우 우선 해당 산업의 생산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증대 효과는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해서 다른 산업의 생산증대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산업의 생산증대는 다시 해당 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한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특정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특정 산업의 생산액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 산업의 생산액 변화가 예측될 때 그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액의 변화가 해당 지역 및 전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생산액이 변화되는 해당산업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1]. 그림 1로부터 생산액 변화가 예측된 부문의 생산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 제시된 산업연관표의 구조로부터 산업별 재화의 배분구조를 행렬로 표현하면 아래 수식과 같다.

$$A \cdot X + A_e \cdot X_e + F - M = X \qquad \text{식(1)}$$

A: 산업별 투입계수 행렬,
A_e: 생산액 변화부문 투입계수 행렬,
X: 산업별 총산출 행렬,
X_e: 생산액 변화부문 총산출,
F: 최종수요 행렬,
M: 해외수입 행렬.

식(1)에 포함된 산업별 투입산출계수와 생산액 변화 부문의 투입산출계수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A_{ij}=\frac{X_{ij}}{X_j}, \qquad A_{ie}=\frac{X_{ie}}{X_e}, \qquad \text{식(2)}$$

X_{ij}: j부문의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i부문의 중간투입액,
X_j: j부문의 총투입액,
X_{ie}: 생산액 변화부문의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i부문의 중간투입액.

식(1)과 식(2)로부터 생산량과 투입산출계수 행렬 그리고 최종재 수요의 관계를 나타내면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3)에서 최종재 수요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제할 경우, 생산액 변화 부문의 생산액 변화로 인해 각 산업에 유발되는 생산변화는 식(4)와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식(4)를 통해서 외부지역에서 기업이 유치될 경우, 유치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내 타 산업과 다른 지역의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X=(I-\mathrm{A})^{-1} \cdot (F+\mathrm{M})+(\mathrm{I}-A)^{-1} \cdot A_e \cdot X_e \qquad \text{식(3)}$$

$$\Delta X=(I-\mathrm{A})^{-1} \cdot A_e \cdot \Delta X_e \qquad \text{식(4)}$$

2) 유치기업 선정기준

외부지역에서 기업이 유치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산업의 집적도 증가를 통한 경쟁력 향상, 지방세 증대, 선진기업 문화의 지역내 전수 등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업유치 효과는 유치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와 소득증대효과는 크지만 지역산업의 집적도 증가효과는 크지 않고, 또 어떤 산업은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서 기업유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기

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유치기업 업종을 제시하고자 한다[2]. 이전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내 효과와 지역간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역내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3].

(1)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지역내 생산을 유발하고 이러한 생산활동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증가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부가가치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액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식(5)를 통해서 유치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유발되는 지역내 타산업 및 다른 지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Delta V = A_v (I-\mathrm{A})^{-1} A_e \cdot \Delta X_e \text{ (단, } A_v = \frac{V}{X}\text{)}, \qquad \text{식(5)}$$

A_v: 부가가치 투입계수행렬,
A_e: 산업의 부가가치,
ΔV: 부가가치 유발효과.

(2) 취업유발효과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와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각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는 생산을 유발하고, 유발된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취업유발효과는 최종수요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취업자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5]. 유치기업의 생산액 변화로 유발되는 취업유발효과는 아래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식(6)을 통해서 유치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유발되는 지역내 타산업 및 다른 지역의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Delta EM = A_E \cdot (I-\mathrm{A})^{-1} A_e \cdot \Delta X_e \text{ (단, } A_E = \frac{EM}{X}\text{)}, \qquad \text{식(6)}$$

A_E: 취업자 투입계수행렬,
EM: 산업별 취업자 규모,
ΔEM: 취업유발효과.

3. 분석자료: 이전가능 업종 도출

1) 수도권 제조업의 변화추이

200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 제조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2009년 기준 수도권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29,424개소로 전국의 50.7%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1,013천명으로 전국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출하액은 31조 7,295억원으로 전국의 28.3%를 차지하며, 부가가치는 12조 5,382억원으로 전국의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도권 제조업의 사업체수 구성비는 매우 높지만, 부가가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제조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수도권 제조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연평균 1.0% 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연평균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하액은 연평균 5.7% 성장하였고, 부가가치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제조업의 주요지표별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 수도권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수도권 제조업의 사업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52.7%에서 2009년 50.7%로 하락하였고, 종사자수 또한

표 1. 수도권 제조업(10명 이상)의 변화추이

(단위: 개소, 천명, 십억)

구분		전국(A)	수도권(B)	B/A
2000년	사업체수	51,148	26,957	52.7%
	종사자수	2,311	1,019	44.1%
	출하액	529,314	193,101	36.5%
	부가가치	205,187	80,525	39.2%
2005년	사업체수	57,198	30,259	52.9%
	종사자수	2,443	1,081	44.2%
	출하액	798,632	254,086	31.8%
	부가가치	291,153	104,658	35.9%
2009년	사업체수	57,996	29,424	50.7%
	종사자수	2,453	1,013	41.3%
	출하액	1,122,987	317,295	28.3%
	부가가치	374,501	125,382	33.5%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1.4%	1.0%	-
	종사자수	0.7%	-0.1%	-
	출하액	8.7%	5.7%	-
	부가가치	6.9%	5.0%	-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000년 44.1%에서 2009년에는 41.3%로 하락하였다.

2) 지방이전 가능업종 도출

2009년 기준 수도권 제조업 중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이어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수도권 제조업은 지역에서 대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 업체수가 3개 이상인 업종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의복 ·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업종의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일치되게 재조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4.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9개 업종의 수도권 기업이 5+2 광역경제권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생산활동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한국은행(2009)에서 작성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8]. 앞에서 설명한 식(5)와 식(6)을 통해서

표 2. 수도권 제조업의 규모별 현황(2009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6]	계	100 이하	100-300	300 이상	비고[7]
식료품 제조업	1,205	1,104	87	14	음식료품
음료 제조업	60	53	6	1	음식료품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275	1,236	38	1	섬유 및 가죽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44	2,065	59	20	섬유 및 가죽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02	391	10	1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39	432	4	3	목재 및 종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67	830	34	3	목재 및 종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24	1,097	27	0	인쇄 및 복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9	28	0	1	석유및석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55	1,010	42	3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1	184	51	6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89	2,599	83	7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35	713	20	2	비금속광물
1차 금속 제조업	901	859	37	5	제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804	3,744	54	6	금속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63	2,440	175	48	전기 및 전자기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13	1,061	51	1	정밀기기
전기장비 제조업	2,188	2,087	84	17	전기 및 전자기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42	3,817	107	18	일반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80	773	90	17	수송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72	2	0	수송장비
가구 제조업	902	886	15	1	기타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692	679	12	1	기타제조업
합계	29,424	28,160	1,088	17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이전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지역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음식료품 제조업이 충청권으로 이전하여 10억원의 생산활동을 할 경우, 충청권에는 5.0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15.89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편, 수도권의 음식료품 제조업이 호남권으로 이전하여 10억원의 생산활동을 할 경우, 호남권에는 5.8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23.39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권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 일반기계 순서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금속제품 순서로 나타났다. 호남권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음식료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순서로 크고, 취업유발효과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금속제품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음식료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순서로 크고, 취업유발효과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금속제품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음식료품, 금속제

표 3. 지역별 유치업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

구분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가가치	취업자(명/십억)	부가가치	취업자(명/십억)	부가가치	취업자(명/십억)
음식료품	0.509	15.895	0.587	23.390	0.582	19.704
섬유 및 가죽	0.331	8.016	0.355	13.152	0.383	10.554
목재 및 종이	0.379	4.772	0.377	5.922	0.358	8.647
화학제품	0.308	3.515	0.258	2.504	0.339	5.333
제1차금속	0.204	1.885	0.272	1.539	0.256	1.871
금속제품	0.347	6.411	0.408	7.773	0.469	9.733
일반기계	0.347	5.491	0.387	6.239	0.390	7.285
전기 및 전자기기	0.338	4.174	0.275	4.637	0.264	2.857
수송장비	0.263	3.323	0.287	3.734	0.357	6.413
구분	동남권		강원		제주	
	부가가치	취업자(명/십억)	부가가치	취업자(명/십억)	부가가치	취업자(명/십억)
음식료품	0.520	16.079	0.626	13.504	0.422	11.060
섬유 및 가죽	0.400	11.525	0.314	21.108	0.291	88.657
목재 및 종이	0.359	7.018	0.343	16.359	0.341	13.163
화학제품	0.289	3.184	0.409	7.618	0.302	7.265
제1차 금속	0.227	2.040	0.262	2.257	0.079	12.768
금속제품	0.418	6.930	0.317	12.693	0.304	6.353
일반기계	0.388	5.969	0.358	7.897	0.290	8.777
전기 및 전자기기	0.316	4.762	0.307	7.715	0.192	3.021
수송장비	0.327	4.658	0.288	4.603	0.337	27.310

품, 섬유 및 가죽 순서로 크고, 취업유발효과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종이 순서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음식료품, 화학제품, 일반기계 순서로 크고, 취업유발효과는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종이, 음식료품 순서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 수송장비 순서로 크고, 취업유발효과는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종이, 음식료품 순서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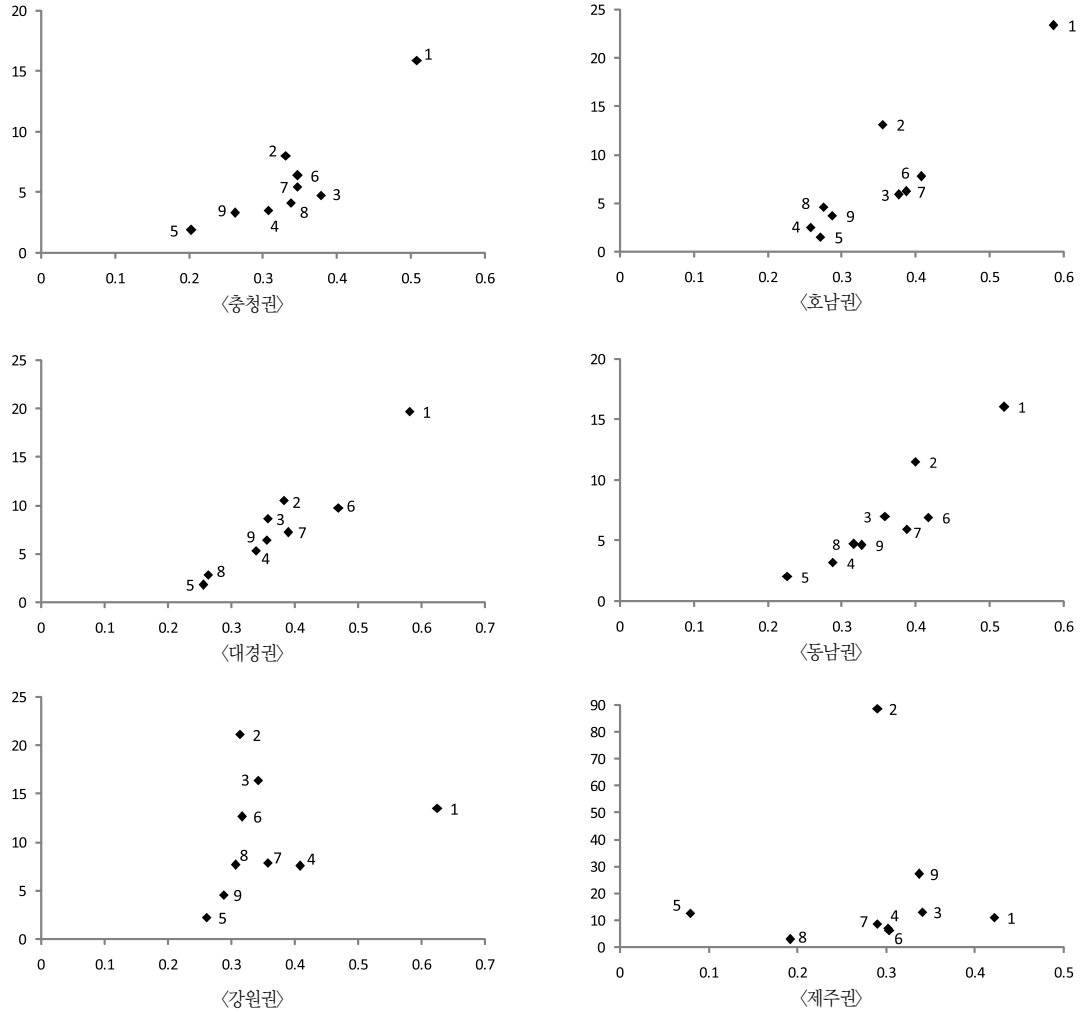
광역경제권 지역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유치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료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2 광역경제권 지역별로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의 순서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업종과 취업유발효과가 큰 업종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역별 부가치유발효과를 X축, 취업유발효과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이 취업유발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동시에 큰 산업은 음식료품(1), 섬유 및 가죽(2), 금속제품(6), 일반기계(7)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기업유치에 있어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취업유발효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유치업종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치업종별 부가가



1: 음식료품, 2: 섬유 및 가죽, 3: 목재 및 종이, 4: 화학제품, 5: 제1차금속, 6: 금속제품, 7: 일반기계, 8: 전기 및 전자기기, 9: 수송장비

그림 2. 지역별 유치업종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크기와 순서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이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업종을 두고 지역간 유치경쟁이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치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의 순서와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의 순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이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두 가지 효과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5. 결론

최근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유치 전략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치기업에 대한 업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유치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분석결과, 개별지역의 유치업종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방이전 이후 생산활동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즉, 이전기업의 운영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개별 지역의 기업유치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지역에서 유치할 기업의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산업집적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

1) 여기서 생산액이 변화되는 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되어 오는 산업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말해 이전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커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기업이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3) 본 연구에서 지역내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적이 다른 지역의 경제활성화이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이다.
4)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여기서 부가가치투입계수는 한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의 규모를 나타낸다.
   $\Delta V = A_V \cdot (I-A)^{-1} \cdot \Delta F$
5) 여기서 취업자는 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를 포함한다.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여기서 취업투입계수는 한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취업자의 규모를 나타낸다.

$\Delta E = A_E \cdot (I-A)^{-1} \cdot \Delta F$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구분.

7) 산업연관표 대분류(28부문)상의 산업구분.

8)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는 전국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재조정하였다.

참고문헌

구교준 · 조광래, 2008,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분석: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pp.333-350.

김영덕 · 조경엽, 2006,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저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54(2), pp.143-184.

김영모, 200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도시정보 통권 282호.

김홍배, 2009, 도시및지역경제분석론, 기문당.

송가영 · 김의준, 2007,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 및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8(3), pp.1-12.

윤갑식, 2008, "인천경제의 지역간 교역구조와 산업연관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pp.45-58.

윤갑식 · 오동훈, 2010, "동남경제권의 지역간 협력분야 도출을 위한 상호의존관계 분석," 한국도시행정학보 23(3), pp.303-322.

윤영선 · 김영수, 2000, "세 지역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연관 분석," 경제학연구 48(2), pp.175-207.

이은석 · 부상돈, 2006, "지역경제의 상호의존관계 분석방법에 대한 고찰–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Quarterly National Accounts, pp.126-164.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9,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Batten, D. F., 1982, "The Interregional Linkages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Input-Output Model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7(1), pp.53-67.

Harris, R.I.D. and A. Liu, 1998, "Input-output Modeling if the Urban and Regional Economy: the Importance of External Trade," Regional Studies 32(9), PP.851-862.

Miller, R. E., P. D. Blair, 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 and Extentions, Prentice-Hall.

교신: 윤갑식,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전화: 051-200-7666, 팩스: 051-200-7670, 이메일: ksyun@ donga.ac.kr

Correspondence: Kapsik Yun, Dept. of Urban Planning, Dong-A University, 840 Hadan2-dong, Saha-gu, Busan, 604-714, Korea, Tel: +82-51-200-7666, Fax: +82-51-200-7670, e-mail: ksyun@donga.ac.kr

최초투고일 2011년 10월 27일
최종접수일 2011년 11월 15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4, No.4, 2011(616~627)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ategories in Attracting Businesses for Regional Economy Activation

Kapsik, Yun*

Abstract :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attracting companies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on regional value-added and employment using a regional input output model and to suggest the most appropriate categories in attracting business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It is assumed that large manufacturing compan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re relocated to 5+2 supra-economic region in this paper. The result shows that selection of categories in attracting businesses should be depend on the characteristic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lso, it is derived that establishing a differentiated strategy in attracting businesses is essential.

Keywords : categories in attracting businesses, regional input output model,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s,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Dong-A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Dong-A University